





|                                                                                                                             |                                                                                                                                                                               |                                                                                                                                                                                   |                                                                                                                                                                                   |
|-----------------------------------------------------------------------------------------------------------------------------|-------------------------------------------------------------------------------------------------------------------------------------------------------------------------------|-----------------------------------------------------------------------------------------------------------------------------------------------------------------------------------|-----------------------------------------------------------------------------------------------------------------------------------------------------------------------------------|
| 전국지사                                                                                                                        | ●부산지사 : 220-0220 ●전남지사 : 225-0011~3 ●경북지사 : 753-9991~4 ●충청지사 : 220-0220 ●전북지사 : 253-6661 ●강원지사 : 48-0001~2 ●제주지사 : 56-0656                                                    | 지정장                                                                                                                                                                               | ●서울, 경기 ●강남 : 553-1741~4 ●강동 : 479-0220 ●강북 : 986-0321~3 ●강서 : 653-6001~2 ●서초 : 702-0220 ●서초 : 552-3340~1 ●용산 : 702-3041 ●중앙 : 232-6464 ●부천 : 657-1117 ●인덕 : 435-0515             |
| ●인천 : 252-9002 ●5성 : 702-0110 ●영광 : 41-1601~3 ●영동 : 45-3535 ●대구 ●경북 : 246-0700 ●경남 : 351-8000 ●안동 : 54-6288~9 ●포항 : 72-9645 | ●부산 ●강남 ●충무 : 248-9300~3 ●동대 : 833-6101 ●마산 : 41-3840~1 ●울진 : 75-0077~9 ●충주 : 41-0040 ●광주 ●전남 ●광주 : 364-4200 ●여수 : 745-2400 ●목포 : 72-0110 ●광주 : 83-5277 ●군산 : 42-1009 ●대전 ●충청 | ●서울 ●부산 ●강남 ●충무 : 248-9300~3 ●동대 : 833-6101 ●마산 : 41-3840~1 ●울진 : 75-0077~9 ●충주 : 41-0040 ●광주 ●전남 ●광주 : 364-4200 ●여수 : 745-2400 ●목포 : 72-0110 ●광주 : 83-5277 ●군산 : 42-1009 ●대전 ●충청 | ●서울 ●부산 ●강남 ●충무 : 248-9300~3 ●동대 : 833-6101 ●마산 : 41-3840~1 ●울진 : 75-0077~9 ●충주 : 41-0040 ●광주 ●전남 ●광주 : 364-4200 ●여수 : 745-2400 ●목포 : 72-0110 ●광주 : 83-5277 ●군산 : 42-1009 ●대전 ●충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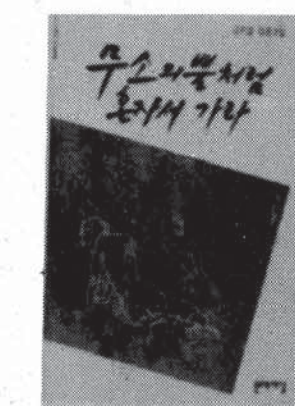
## 독자서평 -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여성문제 차분하게 접근...근본문제 고찰엔 한계

여성문제가 제기되고 이것이 소설화된 것은 물론 최근의 문학계 현상만은 아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와 여성해방에 대한 인식이 점차 성숙의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많은 작가들이 페미니즘 계열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고 문학작품들을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비평해 보려는 시각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90년대는 페미니즘의 강세라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역시도 이러한 여성문제를 소재로 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까지의 여성문제작들-가령 이경자의 『절반의 실패』라든가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이 지극히 극단적이거나 과격적이고 문제의 인식에 있어 과장성을 엿보여 독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면, 이 소설은 비교적 잔잔한 목소리로 『여성해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대학을 졸업한 세 여성(혜원, 경혜, 영선)을 모델로 결혼전 가졌던 이상과 그 '이상'이 현실에서 어떤 '괴리'에 놓이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결혼전 이들은 모두 독립한 한 여성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 후, 영선은 남편과의 유학생활에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의 공부를 포기하고 남편을 성공시키기 위해 뒷바라지를 한다. 한편 경혜는 아내문서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의사아내로서의 지위를 선택한다. 혜원은 결혼



후에도 문필가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둘과는 다르다 하겠다. 그러나 결혼생활중 혜원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죄의식 속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에 회의하며 이혼의 단계에 이른다. 영선도 자신의 회생에 대한 기대심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알콜중독 상태에서 마침내는 자살의 경지에 이른다. 결국 이들에게 남겨진 것은 자신들이 꿈꾸었던 그런 소중한 가정도 사랑도 아니었다. '절망'이며 '좌절'이며 '이혼'이라는 이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혜원과 영선이 선택한 이러한 방식이 다분히 소극적이었던 반면 경혜에게 있어서 문제해결 방식은 이들과 판이하게 다르다. 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서 남편에게 자유연애(?)를 권장하는, 윤리적으로도 다분히 의심스러운 남편 앞에서 그녀는 공허함을 느끼며 타인과 적당한 불륜의 관계를 행한다. 주인공 세 사람의 대응방식은 각기 달랐지만 결국 이들의 행

동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인수가 발견된다. 즉 그들의 그러한 태도는 아내에게 있어 '의무'만을 강조하는 유교의 가부장적 권위체계 내에서 자신들의 존재와 함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었던 것이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처럼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성문제가 어떤 사회구조 속에서 파생된 것인가를 이해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고찰하는 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결론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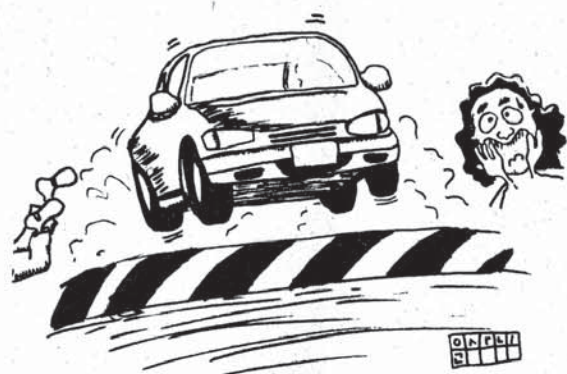
듭짓고 관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대안이 없는 비판은 통상 불평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제 더 이상 여성들은 신데렐라 콤플렉스 속에서 여성해방의 깃발을 들고 나타난 왕자님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여성은 '희생자' 남성은 '가해자'라는 피해의식을 갖고 대(對) 남성투쟁을 전개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남성들의 고정화된 봉건적 권위주의 의식 속에서 여성이 설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 만으로는 부족하다. '질곡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불완전한' 남·녀 모두가 애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격려와 배려를 함께 할 때 우리 사회도 건강한 의식 위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

(임선희, 국어국문학과)

## 독자만평

성능이 출세를 가른다!



완전 장면을 개편한 것입니다. 절대 흥내는 금합니다.

고운산 (국어국문학과)

## 사람들

## 운동권출신 고창후 동문 사시 최종합격

## “자신감만 있으면 못넘을 벽 없어”

재학시절 학생운동을 적극 주도하고 졸업후에도 재야단체에서 활동하던 고창후(법학과 83학번) 동문이 제35회 사법고시에 최종합격했다.

자신의 재학시절을 두고 그는 “80년대 시대상황은 군부독재 치하였고, 양심있는 학생이라면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게 당시 생각이었죠”고 회고한다.

학생운동에 주력하게 된 것은 86년 법학과 학회장이 되면서부터라고. 이후 우리학교 민주화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86년 5월 14일 1천여명 이상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는 등 각종 시위에 앞장서고, 호헌철폐를 부르짖다가 두번이나 붙잡혀 각각 10일, 20일의 구류에 처해지기도. 그러나 이러한 억압에 굴하지 않았던 그는 장기집권 음모

저지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86년 12월 4일 급기야 구속, 1심에서 1년 6월 징역선고, 2심에서 3개월유예를 선고받았다. 투옥 6개월만인 87년 5월 풀려났다.

투옥과 제적 등의 시련 끝에 88년 졸업한 그는 나라사랑청년회 활동을 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아버지의 생활모습과 주위의 권유로 사법고시준비를 결심했다.

학생운동을 하면서도 3학년까지 졸군 A급장학생이었던 그는 3학년이던 85년 5월 사시 1차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있다고 귀띔. 91년 3월부터 2년여만에 사시에 합격한 그는 1차때는 떨어지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1개월을 남겨두고 어려웠고, 2차때는 자신감

결여와 미래불안, 체력소모 때문에 1년내내 힘드셨다고 그 고충을 토로. 또한 “시험준비기간에는 인간관계를 단순화시키고 계획적인 생활을 하며 자신감과 인내력을 항상 견지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한우물을 파고 2~3년간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사법고시가 못넘을 벽은 아니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는 모든 후배들에게 지방대라는 열등의식을 버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명문대학생들이 뛰어난 점은 남들보다 더 노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배들로부터의 조언 등이 그들의 노하우를 축적해준다. 모든 시험은 뛰어난 머리보다는 집중적인 노력을 필



요로 한다”며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더욱 노력해줄길 당부한다.

그는 앞으로 김·판사중 적정한 것을 택해 활동할 예정이며 특히 제주도에 필요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피력. 또한 “인권변호사라는 화려한(?) 역할을 욕심내는 건 아니지만 한계에 부딪힐 때까지 울음을 쫓겠다”고 다짐한다.

정력적이고 최선을 다해 힘쓰고자 했던 게 학생운동이었고, 지금도 멋스럽고 잘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그에게서 진정한 대학인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면 시집에는 고은진(4)학우의 「패왕이 꽃」 부유섭(3)학우의 「나와 주사」 김은형(2)학우의 「어떤

소문만 들던 만도의 신뢰성, 구매상담에서 서비스까지 만도의 정성을 직접 체험하십시오!



최첨단 기술의 신세대 자판기!

만도 커피가든 자판기

萬都機械(株) Mando Machinery Corp.

■신용과 정성의 만도자판기 대리점  
☎ 55-5738  
56-7988

## 無 論 有 說 개혁 그리고 또 개혁



최병길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은 변화를 보아왔다. 개혁이라고 표현될 만큼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는 그 진행속도가 빠르고 충격적이며, 반발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정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건국 이래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이 기간을 같이 살아온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이다. 비록 형식적이나마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지도자들의 통치행위나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선진국과는 달리 사회구조의 틀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마한 변화를 가지고도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어느 조직이고 그 틀이 안정되어 있으면 한사람의 영향이 그리 크게 나타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직을 이끌어 가는 한사람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는 수많은 하부 조직들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운용되지 못해 왔으며, 항상 변화가 마련인 조직이 그 구성원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지난 과거는 이러한 변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려는 노력 대신에 이를 억제하는 데 더 많은 힘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이 지지를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경제발전 속도가 빨라진 우리나라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회변화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식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하는 속도도 그에 미치지 못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일제식민지와 해방, 6·25전쟁과 좌·우익간의 갈등, 군부정변과 문민정부를 체험하면서, 생존만이 최우선이었던 사회환경과 씨름거리 대가죽을 형성하면서 오순도순 살던 농경시대의 생활환경에서 형성된 의식이 경제발전 덕분에 소비지향적으로 변해버린 사회환경과 도 시속의 시멘트문화로 변모해 버

조직이고 조직이 크든 작든 그 조직을 이끌어 가고 있는 책임자의 현재의 의식결정은 조직의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다음의 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도의 수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개혁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인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의식개혁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이를 지지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일시적인 개혁이 아니고 세대에서 세대로 시대와 상황변화에 알맞는 사회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의식개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교육이다. 가정이나 사회교육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이에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으며 효과면에서는 학교교육의 비중이 가장 높다고 보아야 한다. 교육열이 높은 점과 교육의 틀이 단단하지 못한 점은 이 분야에서의 조그마한 변화가 커다란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은 그 만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며 교육을 맡고 있는 책임자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 다음에 또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분야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이들이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중앙에서나 지방에서, 대학에서나 유치원에서, 그리고 내부의 내부에까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Positive한 방향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의 정부가 다음의 개혁목표를 교육에 두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나 개혁이라고 표현될 정도의 변화를 가져다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 많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관광영학과 전임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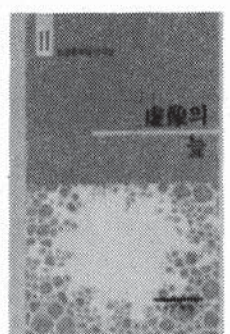
## 개신간

시집 - 『허상의 늪』

초승문학동인서 펴내

국어국문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문학동인회인 초승(회장 이정일 81학번)에서는 11번째 동인시집 『허상의 늪』을 펴냈다.

이번 시집에는 고은진(4)학우의 「패왕이 꽃」 부유섭(3)학우의 「나와 주사」 김은형(2)학우의 「어떤



한수

김창호 동문(84학번)의 「촛불에 관하여」 등 모두 70편의 시가 실려 있다.

초승 동인은 1982년에 창립해 매년 작품집을 발간해 오고 있으며 현재 회원은 20명이다.

문학계간지 『상상』 창간

도서출판 '살림'에서 새로운 문학계간지 『상상』을 창간했다.

1993년 가을호로 창간된 『상상』은 문학을 중심으로 하여 영화, 대중음악, 만화, 광고, 연극, 미술, 그리고 컴퓨터와 AV 하드웨어, 첨단미디어 등 모든 문화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수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학지이다.

『상상』이사가 넘쳐서 '권하 고심은 책'과 '독자의 소리'는 쉽다.

## 이제, 자판기 사업의 성공이 시작됩니다

## 최첨단 기능

사업성공의 열쇠는 역시 고수익! 만도의 최첨단 전문기술은 곧 수익성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 운영의 편리성

운영이 편하지 않으면 「자동」판매기가 아닙니다. 만도의 전문기술은 정말 편리한 자판기를 제공합니다.

## 혁신적인 디자인

신세대 감각의 올라운드 디자인, 아름다운 형광불빛의 버튼조명, 세련되게 설계된 LED램프까지 손님의 시각을 만족시켜 구매욕을 자극합니다.

## 초절전 설계

최첨단 기술은 대폭적인 절전을 실현하여 운영비용이 적어 고수익을 보장합니다.

## 완벽한 위생설계

완벽한 위생설계는 손님을 편안하게 모시고 커피 고유의 풍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소문만 들던 만도의 신뢰성, 구매상담에서 서비스까지 만도의 정성을 직접 체험하십시오!



최첨단 기술의 신세대 자판기!

만도 커피가든 자판기

萬都機械(株) Mando Machinery Corp.

■신용과 정성의 만도자판기 대리점  
☎ 55-5738  
56-7988